

의안번호	제 2022 - 22호
보 고 연 월 일	2022. 10. 21. (제12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개임 보고	2
1. 양형위원회 개임	2
2.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3
III. 2021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5
1. 개요	5
2. 수록 내용	5
3. 2021. 4. 27.~2022.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5
4. 추진 일정	8
IV. 2022년도 국정감사 수감	9
1. 개요	9
2. 주요 보고내용	9
3.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9
V. 2022년도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20
1. 필요성	20
2. 일시·장소	20
3. 참석대상	20
4. 주제	20

VI. 2022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21

- 1. 필요성 21
- 2. 일시·장소 21
- 3. 참석범위 21
- 4. 주제 21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22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2
-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24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50차	2022. 10. 11. 16:00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II. 양형위원 개임 보고

1. 양형위원회 개임

(1) 개요


- 2022. 9. 13.자로 김후곤 위원 퇴직(해임간주), 2022. 9. 20.자로 김관기 위원 해촉(사임)
- 2022. 10. 5.자로 이주형 위원(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안정호 위원(변호사) 각 위촉

(2) 양형위원 구성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김 영 란	前)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2021. 4. 27.
위원 (법관)	김 광 태	서울고등법원장	2021. 4. 27.
	구 회 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4. 27.
	권 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2021. 4. 27.
	손 철 우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21. 4. 27.
위원 (검사)	이 주 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22. 10. 5.
	김 선 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2. 7. 1.
위원 (변호사)	안 정 호	변호사	2022. 10. 5.
	한 영 환	변호사	2021. 4. 27.
위원 (교수)	김 혜 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4. 27.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4. 27.
위원 (학식·경험)	박 준 우	MBC 보도본부장	2021. 9. 2.
	서 창 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1. 4. 27.

2. 신입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이 주 형
	생년월일	1967. 7. 28.
	출 생 지	대구
	소 속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 요 경 력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1996.	공익법무관	
○ 199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0.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 200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10.8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 2011.9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 2012.7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2013.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2014.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2015.2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16.1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 2017.8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18.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2019.7.31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20.1.1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2020.8.1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1.6.1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2.6.27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성 명	안 정 호
	생년월일	1968. 3. 20.
	출 생 지	충북 청주
	소 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 요 경 력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공군법무관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1999.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1담당관	
○ 2007.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 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201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2012.4	변호사 개업(서울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Ⅲ. 2021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 2022. 3. 28.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202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함

2. 수록 내용

- 2021. 4. 27. ~ 2022. 4. 26.까지의 제8기 전반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22년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21. 4. 27. ~ 2022.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7회)

차 수	일 시	안 건
109차	2021.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위촉장 수여식▪ 1~7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2021년 운영지원단 주요 추진 업무 보고
110차	2021.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
111차	2021.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의결
112차	2021.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113차	2021.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권고 형량범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심의 (기본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차 수	일 시	안 건
114차	2022.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심의·확정 ▪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115차	2022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의결 ▪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나. 전문위원 전체회의(7회)

차 수	일 시	안 건
140차	2021.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검토
141차	2021.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검토
142차	2021.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설정 범위, 유형 분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43차	2021.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권고 형량범위)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검토 (기본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144차	2022.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검토 (적용 범위, 설정 대상)
145차	2022.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46차	2022.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다.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개최(2021. 6. 21.)

- 아동학대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측면에서의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소주제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공동심포지엄 개최(2021. 11. 8.)

- 젠더폭력 범죄를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 소주제 :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마.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2022. 2. 25.)

(1) 개요

- 위원회는 제114차 회의(2022. 1. 24.)에서 제17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공청회를 2022. 2. 25.(금) 개최하였음(방청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2) 주제 및 진행 경과

- 2022. 1. 24. 위원회 제114차 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일반시민, 기자 등 약 50명이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을 방청하였음

바. 제13차 자문위원회 개최

(1) 개요

- 제13차 자문위원 회의는 2022. 2. 14.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위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자문의견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 분류 방안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존치 여부 등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4. 추진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2022. 10. 말까지
- 견본 제작: 2022. 11. 초순
- 교정 작업: 2022. 11. 중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2022. 11. 하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2022. 12. 중순

IV. 2022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22. 10. 4.(화) 10:00 국회 본관 406호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양형위원회 주요업무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들의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에 답변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일반현황, 2022년 양형위원회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추진 업무

3.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1) 구두질의와 답변

- [장동혁 위원 질의] 최근 마약범죄의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고,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범죄 사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19세 이하 적발 인원이 45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3.8%나 증가했음. 요즘 SNS 등을 통해 마약 구매가 가능해지다 보니 미래청소년들의 마약범죄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고, 재범률도 36.6%로 높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도 사실임. 그런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마약범죄가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율은 떨어지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이 41개 범죄 중에서 34번째로

그만큼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도에 전체가 84%인데 마약범죄는 76.2%만 지켜지고 있고, 2012년도에 전체가 85.8%인데 마약범죄만 80%, 전체적으로 89.9%가 평균인데 마약범죄는 82.1%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전 우리나라에 마약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고,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지키는 비율도 그만큼 낮은 것 같음. 우선 양형기준을 지키는 것이 개개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지켜야 될 문제이기에 양형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마약범죄의 양형기준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양형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함. 사실 2020년도에 일부를 조금 올리긴 했음. 양형기준에 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위원님 말씀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음

○ [박형수 위원 질의] 양형기준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양형기준 외에 구속기준도 한 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위원회의 권한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할 것 같음

○ [박형수 위원 질의] 권한을 준다면 마련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당장은 어렵겠지만 권한을 주면 연구를 해

서 해야 할 것 같음

- [유상범 위원 질의] 저도 양형위원을 해봐서 가중인자, 감경인자를 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 우리가 진지한 반성, 일반적 양형감경인자로서 오랫동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가 악용되는 부분이 항상 발생함. 2019년 선고한 1심 사건 중에서 거의 40%가 진지한 반성의 이유로 감형을 했다는 통계 분석이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돈을 주고 반성문을 사서 대필하는, 보시면 5페이지에 10만 원, 이런 비용이 들고 대필하는 업이 성행을 할 정도로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반성문 제출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역형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하고 사유는 진지한 반성이고, 그래서 과연 이 반성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일반적 양형기준의 추상적인 문구로 봐둬으로써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음. 심리상담 업체에서 심리상담을 한 사실 자체가 나중에 선고된 판결 59건 중 약 31건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이 됨. 이것도 사실상 진지한 반성 부분임. 우리가 일반적 감경인자로서 설정을 해놨더니 이 사회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형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지가 꽤 됐음. 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재범 또는 전과가 3범이라든가 이렇게 전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와 단순 초범의 경우를 반영하는 어느 정도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함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올해 7월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규정을 만들었음. 물론 이것도 판사님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또 심리를 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하는 등으로 노력하겠음

○ [유상범 위원 질의]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걸러낼 건가를 판사에게만 맡겨가지고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함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정의규정을 만들었고, 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음

○ [유상범 위원 질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 과거의 범죄전력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과거의 범죄전력은 다른 양형인자로도 많이 들어가 있음

- [유상범 위원 질의] 그런데 이것은 가중되기도 하는데 또 결국은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항상 들어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함
- [정점식 위원 질의]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요?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그러함
- [정점식 위원 질의] 올해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될 수가 있는지?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유사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는데 그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스토킹은 3년 이하 징역이라, 양형위원회에서 1년 이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망설였음.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시행된 것이라 지금 당장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1년 이하 징역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이라도 기준을 만들자고 지난번 회의에서 정했음
- [정점식 위원 질의] 새로운 범죄유형이라서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범죄유형이니까 좀 신속하게 스토킹범죄 전반에 걸친 양

형기준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알겠음

○ [박주민 위원 질의] 양형기준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나 권철승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시스템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음. 성범죄와 관련해서 기존 양형기준, 양형인자들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올해 양형기준을 한 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내용은 처벌불원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하여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판단해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진지한 반성과 관련하여 이 부분도 자발적인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음. 기존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그러함

○ [박주민 위원 질의] 그런데 아까 권철승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현재 법률 시장에는 반성문 대필서비스, 합의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옴. 그래서 만약에 반성문 또는 합의문을 받아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됐거나 또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관련된 보도내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불원하는구나, 가해자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

여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양형조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음. 양형조사관을 통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사정이라든지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법관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을 통해서 검증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양형이 보다 적절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답변] 위원님 말씀과 문제의식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 또 저런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도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정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입법적 뒷받침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법원의 오랜 바램임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저도 같은 입장임. 사실 외국 사례들에서는 양형조사관이 사실심리 못지않게 양형조사심리를 법정 및 법정 외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탄희 위원 질의] 스토킹범죄에서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게 더 큰 감형 사유가 될까요? 10년 동안 연인관계였다, 혼인관계였다, 전부 다 실제 판결문에 감형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불러 드린 것임. 화면 보시면 2022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월 남부지방법원, 5월 수원지방법원, 6월 남부지방법원 수도 없이 많음. 제가 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범죄로만 판결이 선고된 95건 전수조사를 했음. 실형선고가 16.8%에 불과하고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많았음.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중에 40%가 연인관계,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였음. 연인관계여서 이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서 감형사유가 되고 있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

○ [최강욱 위원 질의] 제가 보기에 양형인자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과정인 것 같음. 그런데 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신분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3급 이상이면 가중사유가 되는 것 같음. 그거 하나 외에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반적인 이야기로 되어있는데, 형사법이 늘 고민거리로 알고 있었던 성편향 내지는 계급편향, 이런 것들이 양형위원회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지?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그 부분은 양형인자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함. 작량감경을 할 때 혹시나 범죄의 특성에 따라 감경되었을 것 같기는 함. 어쨌든 성편향 또는 양형의 여러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음

○ [권칠승 위원 질의]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음. N번방의 조주빈이나 또 가수 정준영, 승리 이런 사건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있었음. 재판 전에는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 상당히 무게를 두지만 재판 이후에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고

블로그도 운영을 했음.

그다음 성범죄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보면 ‘카찰죄 양형자료 어떤 게 있나요’ 카찰죄는 카메라불법촬영죄인데 이 내용 밑에 ‘정신병원 다니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떨쩡하지만 정신병원을 다녀야 양형에 도움이 되니까 ‘정신병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이런 뜻임. 정신병원 다니는 거에다 추가로, ‘1번 합의, 2번 반성문·탄원서, 3번 정신의학과 치료, 4번 봉사,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음. 그다음 마지막에는 ‘첫 반성문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자기가 반성문 하나 썼는데 침삭해 달라는 문구가 있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반성문 대필업체가 있는 것인데 아시는 건데, 이 반성문을 요즘은 AI로 써 주고 있고, AI로 써 주기 때문에 선택지 조합이 한 10만개 정도가 나옴. 반성문 작성 가이드도 있고, 탄원서 작성 가이드도 있음. 그뿐만 아니라 감형 패키지 전문 업체들이 등장을 해서 양형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패키지화해서 상품으로 팔고 있음. 56만 원짜리를 38만 원에 판다고 광고도 하고 있음.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물론 중요한데,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반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한테 반성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음. 판사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이 판사의 마음이라는 건데 저는 구조적으로 물론 판사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피해자한테 그 반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과 위원장님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장 답변] 만약에 양형사유를 긍정적으로 참작하기로 마

음먹는다고 한다면, 긍정적 양형사유로 삼을 만한 반성이 정말 여러 사정에 비춰서 있는지를 법원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저도 방금 처장님 말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형벌은 응보만이 아니고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정말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가해자가 있다면 완전한 삭제보다는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철저한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AI를 이용한 패키지 업체를 통해 반성문 제출 등이 성행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나 판사들의 철저한 양형심리 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서면질의와 답변

- [이탄희 위원 서면 질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 훨씬 더 위험성이 큼. 그럼에도 일부 판결에서 연인관계임을 참작하여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의견 및 개선 방안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스토킹범죄의 감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양형위원회는 향후 2021. 10. 21.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톱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양형위원회가 스톱킹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공청회, 관계 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스톱킹범죄의 양형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V. 2022년도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1. 필요성

-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하여 제8기 양형위원회가 설정·수정 중인 양형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기회 마련
- 회의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양형위원과 전문위원 간 친목 도모

2. 일시 · 장소

- 일 시 : 2022. 10. 21.(금) 14:00 ~ 10. 22.(토) 11:30
- 장 소 : 양평 블룸비스타

3. 참석대상

- (1)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13명)
 - 위원장, 상임위원, 김광태, 구회근, 권희, 이주형, 김선화, 안정호, 한영환, 김혜정, 강수진, 박준우, 서창록 위원
- (2) 전문위원(5명)
 - 수석전문위원, 이재신, 최형준, 강선주, 김한울 위원
- (3) 운영지원단(13명)
 - 운영지원단장
 - 기획운영과(9명), 통계분석과(3명)

4. 주제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양형위원회 향후 일정 논의

VI. 2022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1. 필요성

- 양형자료분석과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하여 조사와 분석업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워크숍을 통하여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11. 11.(금) 13:30 ~ 11. 12.(토) 【1박 2일】
- 장 소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사냥메기길 56-56 법원연수원

3. 참석범위(29명)

-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8명), 자료조사과(15명), 통계분석과(4명)

4. 주제

주 제	발 표 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	김남용 사무관
미정	박윤택 분석관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9. 20.까지 총 661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8. 17. ~2022. 9. 7.(24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2022. 9. 6.(1)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3	2022. 8. 17. ~2022. 9. 7.(417)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에 특정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2. 9. 20.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213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9. 7. ~ 2022. 9. 20.(9)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2022. 9. 7. ~ 2022. 9. 20.(204)	○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9. 20.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8. 31.(1)	○성별에 따른 형량 차이에 대한 의견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사재판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9. 20.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9. 15.(1)	○ 개별사건의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진행에 대한 억울함 호소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